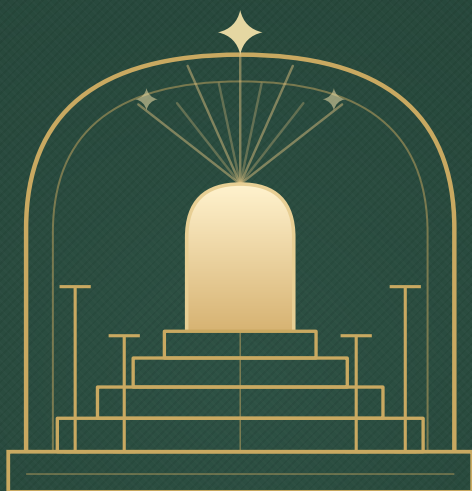




직장운 한방풀이

나의 자리, 더 나은 내일

고 객 명

홍길동

출생연도

1994년 (양력 1월 18일)

발 행 일

2026-01-01

나의 출생 정보와 현재 직업 상황

입력하신 정보와, 이 책이 다루는 범위입니다.

출생 정보	1994년 1월 18일 · 양력 · 시간 미상
사용한 역법	절기(節氣) 기준 만세력
시각 기준	대한민국 표준시 (동경 135도)
자시 기준	야자시 (일주 유지)
산출한 기둥	세 기둥 (여섯 글자) · 시주 제외

- 출생 시각을 몰라 시주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행 분포는 아는 6글자 기준입니다.
- 표준시(동경 135도) 시계 시각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국내 대중 만세력과 같은 기준입니다. 진태양시 보정을 적용하면 절입·자시 경계 출생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4년 1월 18일생 남성으로 계산했습니다. 출생 시각이 입력되지 않아 시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주를 임의로 만들면 나머지 해석까지 함께 들어지므로, 연·월·일주 여섯 글자로만 봅니다. 오행 개수를 셀 때도 분모를 여덟이 아니라 여섯으로 두었습니다.

현재 직업 상황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생인지, 재직 중이며 지금 회사를 유지하고 싶은지, 재직 중이며 이직을 생각하는지, 퇴사 후 구직 중인지,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같은 지면의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취업 준비생에게 '내부 이동을 검토하라'고 쓰면 그 지면은 통째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리는 지면마다 해당하는 경우를 나눠 적었습니다.

경력·자격·기술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경력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16쪽의 직무 후보는 원국에서 읽히는 방향과, 그 방향이 맞는지 확인할 작은 경험을 함께 적는 형태로 썼습니다.

- 1 현재 직업 상황을 알려 주시면 18·21·22·27·28·33~36·40·41·47~49쪽이 그 상태 하나로 다시 쓰입니다.
- 2 경력과 보유 기술을 알려 주시면 16·17·41·43쪽이 실제 경험과 대조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출생 시각을 알려주시면 시주(時柱)까지 넣어 더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기둥으로 해석했습니다.

제 2 장

필수 사주원국과 기본 해석

4 - 12

한눈에 보는 나의 사주원국

계유(癸酉) · 을축(乙丑) · 갑진(甲辰). 시주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주 말년·자녀	일주 중년·본인	월주 청년·부모	연주 초년·조상
십성	—	일간	겁재	정인
음양오행	—	갑(양목)	을(음목)	계(음수)
천간	—	갑 甲	을 乙	계 癸
지지	—	진 辰	축 丑	유 酉
음양오행	—	진(양토)	축(음토)	유(음금)
십성	—	편재	정재	정관
지장간	—	을 · 계 · 무	계 · 신 · 기	경 · 신
12운성	—	쇠	관대	태
12신살	—	천살	화개살	장성살
신살·귀인	—	금여성 백호대살 현침살 화개살	천을귀인 화개살	천문성 도화살



일주 동물 · 용

품이 크고 상상이 넓습니다. 판을 키우는 데 강합니다.

일간은 갑(甲), 큰 나무에 해당하는 양목입니다. 나를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연지 유(酉)는 정관, 월지 축(丑)은 정재, 일지 진(辰)은 편재입니다.

출생 시각을 알려주시면 시주(時柱)까지 넣어 더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기둥으로 해석했습니다.

나는 안정과 도전 중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

안정 쪽입니다. 다만 정체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 해석의 근거

강약 중화에 가까운 신약

정관과 정재가 뚜렷한 구조는 안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규칙이 있고, 평가 기준이 분명하고, 다음이 예측되는 환경에서 힘이 붙습니다. 변화 자체를 즐기는 쪽은 아닙니다.

다만 안정과 정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원국이 견디지 못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하는 일이 늘 같은데 나아지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인이 있어 배움이 멈추면 답답해집니다. 안정된 조직이라도 배울 것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자율성 욕구는 중간 이하입니다. 스스로 다 정해야 하는 환경보다 틀이 주어진 환경을 편하게 느낍니다. 다만 그 틀 안에서 내 방식대로 굴릴 여지는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지시받는 형태는 편재가 답답해합니다.

보상은 금액보다 형태를 봅니다. 재성이 정재 중심이라 큰 한 번보다 예측 가능한 꾸준함에 안정을 느낍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 구조보다 기본급이 안정적인 구조가 이 원국에는 맞습니다.

항목	이 원국의 성향
규칙	분명한 쪽을 선호 · 기준 없는 환경에서 피로
자율성	중간 이하 · 틀 안의 재량은 필요
변화	빈번한 변화는 부담 · 정체는 더 부담
보상	예측 가능한 꾸준함 > 큰 한 번

나에게 맞는 직업·직무 후보 5가지

경력이 입력되지 않아, 방향과 확인 방법으로 적었습니다.

이 해석의 근거

오행 목2 화0 토2 금1 수1

직무 후보를 다섯 가지 적습니다. 다만 경력·자격·보유 기술이 입력되지 않았으므로 '이 직무가 맞습니다'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주는 성향을 읽는 도구이고, 적성은 실제 경험과 대조해야 확인됩니다.

그래서 후보마다 원국에서 읽히는 근거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작은 경험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미 해 본 항목이 있다면 그때의 느낌이 판단 재료입니다.

다섯 후보는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 같은 성향의 다른 얼굴입니다. 정보·숫자를 다루고, 범위가 정해져 있고, 쌓이면 성과가 보이는 일이라는 점이 공통입니다.

직무 후보	원국 근거	맞는지 확인할 경험
경영지원 · 총무	정관 + 정재 — 규칙과 자원 관리	한 달치 일정·예산을 직접 정리해 보기
데이터 · 정산	재성 둘 — 틀리면 드러나는 숫자	엑셀로 100행 이상 자료를 검증해 보기
품질 · 프로세스 관리	정관 + 갑목 지구력	반복 절차 하나를 문서로 표준화해 보기
교육 · 매뉴얼 제작	정인 계수 — 읽고 구조화	아는 것을 남이 따라할 수 있게 써 보기
고객 관리 · 계약 운영	정관 — 절차가 있는 대인 업무	정해진 양식으로 응대를 며칠 해 보기

- 1 다섯 중 두 개를 골라 '확인할 경험'을 실제로 해 보십시오. 사주보다 그 경험이 더 정확한 근거입니다.
- 2 경력과 보유 기술을 알려 주시면 이 표는 실제 이력과 대조한 내용으로 다시 만듭니다.

내가 오래 일하기 좋은 회사와 조직 환경

규칙이 문서로 있는 조직.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의 근거

오행 목2 화0 토2 금1 수1

조직 규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대기업이 맞는다거나 스타트업이 맞다는 식의 구분은 이 원국에서 실제로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자율성·속도·협업·평가 방식 다섯입니다.

규칙은 문서로 있는 쪽이 맞습니다. 정관이 뚜렷한 구조는 기준이 명문화된 환경에서 안정됩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관행이 많은 조직에서는 계속 눈치를 봐야 해서 피로가 큼니다.

속도는 중간 이하가 맞습니다. 갑목이 방향을 바꾸는 데 느리고 화가 없어 급한 대응에 약합니다. 매주 우선순위가 바뀌는 환경보다 분기 단위로 움직이는 환경에서 성과가 납니다.

평가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상이 없어 스스로 알리지 못하므로, 평가가 '보이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직에서는 계속 손해를 봅니다. 기록과 지표로 평가하는 조직을 고르는 것이 이 원국에는 연봉보다 중요합니다.

항목	맞는 쪽	피할 쪽
규칙	문서로 정리되어 있음	관행으로만 전해짐
자율성	틀 안에서 방법은 재량	매 단계 지시 또는 전부 알아서
속도	분기 단위로 움직임	매주 우선순위가 바뀜
협업	역할 경계가 분명함	누가 할지 매번 정해야 함
평가	기록과 지표 중심	인상과 발표 중심

앞으로 12개월, 일과 이동의 흐름 한눈에 보기

12개월 흐름표입니다. 합격률이 아니라 해석상의 흐름입니다.

아래 표는 발행월부터 12개월간의 흐름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표는 합격률이나 이직 성공률이 아닙니다. 월지와 세운이 원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해석한 것이고, 실제 결과는 공고·자격·면접 일정·제안 조건이 정합니다.

또 하나, 이 원국은 월별 편차가 큰 편이 아닙니다. 화가 없고 목·토가 고르게 있어 계절에 따라 크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통'인 달이 많습니다. 억지로 등급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시기	해석상의 흐름	이 시기에 할 일
1~2개월	보통 — 큰 변화 요인 없음	한 일 기록 정리 시작
3~4개월	참고 구간 — 금 기운, 자리·역할 논의	면담 준비 · 평가 자료
5~6개월	보통	역량 보완 · 자료 정비
7~8개월	참고 구간 — 수 기운, 배움과 지원	지원 집중 · 학습 마무리
9~10개월	보통	받은 제안 검토 · 조건 비교
11~12개월	변화 구간 — 결론이 나는 흐름	미룬 결정 내리기

- 1 '참고 구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보통인 달에 준비해 둔 것이 참고 구간에 쓰입니다.
- 2 오른쪽 열만 달력에 옮겨 적으십시오. 왼쪽은 근거이고 실제로 쓰는 것은 오른쪽입니다.

연봉·직무·안정성, 제안을 비교하는 나만의 기준

이 원국에는 연봉보다 평가 방식이 먼저입니다.

연봉 액수는 사주가 아니라 시장과 협상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면은 금액 대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씁니다. 이 원국에는 그 편이 실제로 더 이득입니다.

이 원국의 우선순위는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가 평가 방식, 둘째가 업무 범위의 명확성, 셋째가 안정성, 넷째가 연봉입니다. 연봉을 낮게 두라는 뜻이 아니라, 앞의 셋이 어긋나면 연봉이 높아도 오래 못 간다는 뜻입니다.

평가 방식을 첫째로 두는 이유는 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알리지 못하는 구조에서 인상으로 평가하는 조직에 가면, 연봉이 높아도 다음 인상에서 밀립니다.

아래 표에 항목을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 제안을 받으면 이 표에 옮겨 적어 비교하십시오. 머릿속으로 비교하면 이 원국은 조건보다 분위기에 끌립니다.

항목	확인할 것	가중치
평가 방식	기록·지표인가 인상인가	가장 높음
업무 범위	문서로 정해져 있는가	높음
안정성	조직과 직무가 계속될 구조인가	높음
연봉	총액과 구성(기본급 비중)	중간
성장	1년 뒤 무엇을 배웠을 것인가	중간
통근·근무형태	지속 가능한가	낮지 않음

직장운 한방 총평 — 나의 일과 다음 선택

말아서 굴리는 데 강한 구조. 알리는 습관만 채우면 됩니다.

사용한 역법	절기(節氣) 기준 만세력
시각 기준	대한민국 표준시 (동경 135도)
자시 기준	야자시 (일주 유지)
산출한 기둥	세 기둥 (여섯 글자) · 시주 제외
발행 번호	20260101-0004

- 출생 시각을 몰라 시주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행 분포는 아는 6글자 기준입니다.
- 표준시(동경 135도) 시계 시각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국내 대중 만세력과 같은 기준입니다. 진태양시 보정을 적용하면 절입·자시 경계 출생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근거

대운 **임술** (24~33세)

원국의 핵심은 정관·정재·정인이 갖춰져 있고 식상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범위를 굴리는 데 강하고 알리는 데 약합니다.

적합한 직무는 정보와 숫자를 다루고 범위가 정해진 일입니다. 조직은 기록으로 평가하는 곳이 맞습니다.

참고 시기는 7~10개월째입니다. 다만 시기가 준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선 행동 하나만 고르라면 기록입니다. 주 단위로 한 일을 세 줄 적는 것입니다. 평가·이직·면접 세 곳에서 전부 쓰이고, 이 원국에서 값이 가장 큰 습관입니다.

출생 시각을 알려주시면 시주(時柱)까지 넣어 더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기둥으로 해석했습니다.